

빼빼로 데이, 발렌타인 데이, 그리고 크리스마스 썰

글 박연숙(본지기자)

크리스마스 연말 분위기로 12월은 우리의 마음을 한껏 들뜨게 만드는 달이다. 그러나 부족함도 더 크게 와닿는 시기 역시 요즘이다.

12월이 되면 수많은 매체와 단체들은 불우 이웃을 돕는 각종 자선행사, 모금행사를 실시한다. 기업들은 기부문화 정착의 일환으로 앞 다투어 막대한 노력과 자본을 들여 행사를 개최하고, 백화점은 바자를 실시하며, 모금행사부터 봉사활동까지 그 영역은 다양하다. 그야말로 '나눔'과 '기부'가 대세가 되고 있는 사회이다.

크리스마스 시즌이면 시작되는 대표적인 모금행사로 구세군 자선냄비와, 대한결핵협회의 크리스마스 썰 모금을 들 수 있다. 모습과 방법은 다르지만, 나눔을 실천하는 대표적인 모금활동이라는 점에서 비슷한 부분이 많다.

크리스마스 썰의 유래와 발전

유럽 전역이 결핵으로 근심에 빠져있던 20세기 초,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의 우체국 직원 아이날 홀벨(Einar Holbell)은 결핵 기금을 모금할 수 있는 방법으로 크리스마스 썰을 창안해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엄청나게 쏟아지는 우편물들을 보면서, 우표 옆에 마음을 표현할 수



세계 최초의 크리스마스 스티

있는 작은 징표를 함께 붙인다면 그 기금으로 결핵을 물리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다. 그의 아이디어는 큰 호응을 얻었고, 나중에는 국왕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기금을 모금하였는데 그 기금은 소아결핵사나토륨을 건립하는 등 결핵 퇴치활동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다.

미국에서는 1907년에 덴마크계 미국인 작가 자콥 리스(Jacob Riis)에 의해 스티 운동이 시작되었다. 형제 중 6명을 결핵으로 잃은 그에게 배달된 편지 한

통과 결봉의 스티는 큰 감명을 주었다. 그는 결핵사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던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1907년 월밍톤 우체국에서 처음으로 스티를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덴마크와 미국의 스티 운동 성공에 힘입어 스웨덴, 독일, 노르웨이를 유럽 등지로 스티 운동이 확산되었으며 동양에서는 1910년 필리핀에서 최초로 크리스마스 스티를 발행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캐나다인 선교의사 셔우드 홀에 의해 1932년 최초로 크리스마스 스티가 발행되었다. 이후 사정에 따라 발행과 중지를 반복하다가 1953년 대한결핵협회가 창립되면서 다시 발행을 시작, 스티 모금운동은 범국민적은 결핵퇴치 모금사업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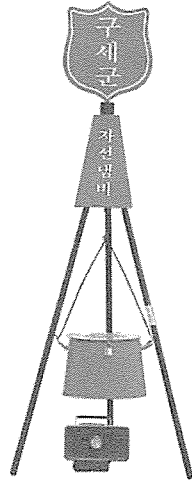
이처럼 결핵퇴치 운동의 상징과도 같은 스티 모금운동은 마치 마른 나무에 불이 붙듯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전세계로 확산,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구세군 자선냄비의 유래와 발전

구세군 자선냄비는 1891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 시작되었다고 한다.

추운 겨울철 어느날 배 한 척이 파선 당하여 난민들이 생겨났고 경제 불황이었던 당시, 시에서는 그들을 위해 도움 예산이 없었고 난민들은 추위에 떨며 굶주린 채 지내야만 했다.

이에 구세군 사관 조셉 맥피(Joseph Mcfee)는 이를 안타까이 여겨 도움 방법을 찾고 있던 중 자신이 영국 리버풀에서 보았던 부뚜기에 놓여있던



자선을 위한 “심슨의 솔”을 기억해냈다. 바로 그 다음날, 맥피 정위는 시당국으로부터 오클랜드 부둣가에 솔을 걸어도 좋다는 허가를 받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 솔을 걸어 놓았고 그 날 모금된 돈으로 난민들에게 따뜻한 스프를 끓여 먹일 수 있었다. 이렇게 시작된 자선냄비는 현재 세계 119개국에서 모금하고 있으며 추운 겨울 이웃돕기 운동의 대명사가 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28년, 당시 한국구세군의 사령관이었던 선교사 박준섭 사관이 서울의 도심에 냄비를 설치하고 불우 이웃 돕기 거리모금을 하면서 시작되어 올해로 76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내용은 구세군 홈페이지 발췌 / <http://www.salvationarmy.or.kr>)

기부, 나눔 문화로 정착

최근 우리나라 초기 쌀 발행의 일등공신인 셔우드홀과 엘리자베스 키스가 국내에서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셔우드 홀은 한국에서 크리스마스 쌀 운동 뿐 아니라 의사로서 결핵퇴치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 외국인이다. 한국을 사랑했던 그의 뜻을 기리기 위해 시신도 양화진 외국인묘지에 안장한 바 있는데, 최근 마포구청에서는 그의 한국사랑을 기리는 연극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여류 화가 엘리자베스 키스는 일본에 5년간 머무는 동안 1919년 한국을 찾게 되었고 한국의 일상을 담은 여러 편의 그림을 그렸다. 특히 <민씨가의 규수>나 <신부> 같은 옛 여인의 모습을 담은 그림이 여러 등장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작품 마다에서 묻어나는



1922년 그려진 엘리자베스 키스의 초상화

한국에 대한 애정어린 시선, 그래서인지 그는 '기탁'이란 한국이름을 갖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그녀가 크리스마스 썰과 인연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키스는 우리나라 썰 발행 초창기인 1934년 크리스마스 썰을 도안하였는데, "때때옷 입은 어린이"를 소재로 한 이 도안은 일본의 트집으로 수정을 거쳐 우여곡절 끝에 발행이 되었다. 이

후 1936, 1940년에도 한국의 크리스마스 썰을 도안했던 그녀는, 비록 사후이기는 하나 지난달까지 전북도립미술관에서 전시회가 열려 다시 한 번 한국인의 마음속에 고마운 외국인으로 각인되었다.

결핵이라는, 또 썰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본다면 서우드 홀이나 엘리자베스 키스는 그저 우리나라 결핵퇴치 운동에 도움을 준 외국인에 지나지 않지만, 좀 더 넓은 의미에서 그들은 우리에게 '나누는 밥'을 일깨워준 선구자이다.

최근 나눔이나 기부가 하나의 문화로 정착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도 확대되고 있다. 돈이나 물건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기부도 있지만, 꼭 물질적인 도움이 아니더라도 작은 정성과 사랑을 나누려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다.

얼마 전, 대한결핵협회에 1천만 원을 기탁한 정광순 씨는 젊었을 때 결핵을 앓았던 기억을 평생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다. 당시 협회 사무실이 있던 회현동을 찾아 결핵약을 받아 결핵을 치료했던 일이 그렇게 잊혀지지 않는다면, 이제 자신도 살 만하니 어려운 결핵환자를 위해 약소한 돈이지만 기부를 하고 싶다고 했다.

정 씨는 "많지 않은 돈"이라며 더 많은 돈을 기부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했지만, 사실 평범한 사람에게 천만원이란 돈은 얼마나 큰 돈인가. 아니,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선뜻 기부하기 어려운 돈이다. 그러나 마음만 있다면 큰 돈 없이도 어려운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아름다운 가게'처럼 '내가 쓰지 않은 물건을

기부' 하고 그것을 판매함으로써 기금을 조성하는 방법, 신용카드 적립금이나 이동통신사의 회원카드 적립금, 캐쉬백, 인터넷상의 사이버머니를 기부하는 방법, 수익금 1% 나눔운동처럼 사회의 변화와 함께 나누는 방법도 다양해졌으니, 이제 '나누는 삶'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예 마음이 없는 것으로 치부되어 버릴지도 모른다.

발렌타인데이, 빼빼로 데이, 그리고 크리스마스 씬

्ष 모금철이 되면 대한결핵협회의 게시판은 씬에 대한 불만으로 넘쳐난다. 씬 모금 자체를 부정하는 의견부터 판매방식에 대한 비판, 모금액의 사용처에 대한 의구심 등이 대부분이다. 부정적인 견해가 많은 편이지만 간혹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거나, 과거 결핵에 걸렸던 기억을 떠올리며 씬 판매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글을 접할 때는, 협회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그래도 의미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조금은 심안했던 마음을 다잡곤 한다.

언젠가 한 네티즌이 올린 글 한편이 떠오른다. 자신을 학교 교사라고 소개한 네티즌은, 발렌타인 데이나 빼빼로 데이에 이성에게 줄 선물을 산다며 몇 만원씩 서슴지 않고 초콜릿에, 사탕에, 빼빼로에 투자하는 학생들을 보며 씹쓸함을 감추지 못했다고 한다.

과연 크리스마스 씬을 어떤 의미로 보아야 할까? 크리스마스 씬이 우편물에 붙이는 용도로 출발했기 때문에 "요즘은 편지도 잘 쓰지 않는데, 도무지 씬을 어디다 쓰라는 거냐?" 하는 실효성 논란에 휩싸이곤 한다. 그러나 기부를 할 때 "이 돈을 내면 대가로 무엇을 주겠냐"는 질문은 하지 않는다. 씬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어떨까? 결핵은 전염병이고, 결핵에 걸리는 일은 내 의지, 내 노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씬 모금액은 어려운 결핵환자들을 지원하는 용도로도 사용되지만 근본적으로 결핵의 예방과 퇴치, 이를 위한 홍보 등 결핵과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 씬을 사는 것은 단순히 '불우결핵환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결핵관리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한 장의 씬은 그 증표가 되는 셈이다.

모금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협회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다. 다만 오랜 기간 실시되어 왔던 방법이고, 1년 동안 필요한 결핵관리사업의 재원을 마련하는 가장 큰 부분이기에 어느 한 순간에 바꾸기가 어렵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보건세계 독자분들께 이 부분만은 말씀드리고 싶다. 이러한 판매방식의 단계적인 전환을 위해 협회가 하고 있는 노력도 보아 달라고. 쇼핑물 오픈과 모바일 씬, 인터넷 씬은 그 노력의 일환이며, 어떤 일도 첫술에 배부를 수 없듯 이러한 노력이 결핵관리사업을 위한 현실적인 재원으로 자리잡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함을 조금만 이해해주시고 기다려 주시기를. ㅎ